

기도 제목 - Prayer Points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을 더 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4.10).

웨일즈 성도들이 겸손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부흥을 사모하게 하소서. 성령의 은혜로 하노버 교회가 웨일즈 부흥의 영적 우물이 되게 하소서. 주일 예배에 성령을 폭포수처럼 부으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충만하게 하소서. 새가족 성도들이 주일 예배에 신실하게 참석하여 은혜와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잭(Jacek), 가리(Gary), 알리슨(Alison) 이 말씀 충만한 주님의 제자로 성장하게 하소서. 여성 절제회 모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아들 겨레 가정의 새로운 사업지 가나(Ghana) 정착에 순적한 길을 열어주소서. 나라 가정(London)에 성령 충만, 은혜 충만으로 신혼의 행복을 누리게 하소서. 연로하신 어머님(홍길자 권사)이 신실한 믿음으로 건강의 복을 누리게 하소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하여 하노버 교회를 기쁨으로 섬기게 하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치유해 주소서: 안젤라(수술), 제리(당뇨), 잭(심장), 메간(노환)

추수 감사예배 - Harvest Service (23th Nov.)

2025 추수감사 예배도 이웃을 돋기 위해 음식과 야채를 모아 푸드뱅크(Food Banks)에 전달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에 참석해 연주와 특송으로 주님의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복음의 열정이 뜨거운 수(Sue), 예배 때마다 춤추며 깃발을 흔드는 도온(Dawne)과 어머니 메간(Megan), 작은 북(bongo)을 연주하는 크리스(Kriss)와 디온(Dion), 성실하게 찬양을 인도하는 제리(Gerry)와 시편을 은혜롭게 낭송하는 알리슨(Alison), 언제나 밝고 명랑하게 광고하고 기도하는 안젤라(Angel)와 봉헌을 섬기는 가리(Gary), 그리고 네빌(Neville)과 해이즐(Hazel), 존(John)과 다이안(Dian) 부부는 특별 찬양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배 후에는 식당을 예약해서 추수감사 점심을 함께하며 즐겁게 교제했습니다.



Harvest Meal (23th Nov)

성탄 예배 – Carol Service (21st Dec)

2025 성탄 예배는 카디프 한인교회와 연합으로 드렸습니다. 다채로운 성탄 찬양과 악기 연주 그리고 특송과 성경 낭독으로 모두가 성탄의 감격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습니다. 특별히 첫 순서를 우리 교회 성도들이 촛불을 들고 앞에서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부르며 시작해 더욱 뜻깊은 성탄 예배가 되었습니다. 인도 선교사(Gerald) 손자인 리차드(Richard)의 간증과 기타 연주는 모두에게 큰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아내 메리 선교사도 한복을 입고 ‘오 거룩한 밤’을 특송해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Carol Service-Hanover Choir

방문자 – Pilgrims

한국 성도들의 선교 여정이 웨일즈에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선교 유적지 답사를 넘어 콘서트와 예배와 집회로 복음의 빛을 갚는 열정으로 웨일즈와 하노버 교회를 방문합니다. 토마스 선교사의 영감을 얻고 웨일즈 부흥 운동의 불이 한국 교회로 옮겨 붙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겨울에도 한국과 많은 곳에서 교회와 다양한 그룹이 하노버 교회를 방문해 기도했습니다.

Ocarina 콘서트(12th Nov)

Pilgrims 10th Dec

한국 방문 - Korea Visit

지난 10 월 둘째 아들 나라 결혼식 참석을 위해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나라 결혼식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마음을 다해 축해주셨습니다. 한국 방문 동안 여러 교회들과 모임들에서 토마스 선교사와 웨일즈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사암교회, 신목교회, 위례비전교회, 평남노회, 절제회, 천보제일, 철풍사랑, 고대조찬기도, 연대기독학생회, 시흥수도원. 많은 분들이 따뜻한 환대와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절제회관에 머물며 연대 기독학생 모임에 토마스와 웨일즈 부흥을 나누며 캠퍼스 부흥을 꿈꾸며 기도했습니다.



유나라 결혼



사암교회



연기연



천보제일